

편집인의 글

올해 이 저널의 세 번째 권을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. 국내외 편집위원들의 협조와 기여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저널이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.

지난 7월 브라질, 산토스에서 열린 UCCN 연차 회의에서 우리는 <공예 및 민속 예술 국제 저널>에 대해 여러 창의도시의 대표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.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의 메리 해몬드 의장은 전체 회의에서 우리 저널을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도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소개했습니다.

올해 우리 저널의 주제는 “창의분야 간의 융합과 협업”입니다. 진주시에서는 이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고,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주에서 열린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도 같은 주제로 열렸습니다. 이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이 두 회의에서 발표된 원고들입니다. 이번호에 참여해주신 모든 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내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. 따라서 이번 호의 주요 대담 주제를 “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추진의 난점과 해결책”으로 잡았습니다. 그 대담은 창의도시 활동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명합니다.

9개 도시가 창의도시 활동 및 문화유산 섹션에 기고해 주셨습니다. 우리는 각 도시의 포괄포인트들과 기고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.

산토스 회의와 진주 회의에서 우리 저널을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의 공식 매체로 만드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. 메리 해몬드 의장의 동의를 얻어 산토스 회의와 진주 회

의의 결론, 북미 창의도시 선언, 공예 및 민속예술 클러스터 거버넌스 규칙을 포함한 문서들을 이 저널에 실었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저널은 공예 및 민속예술 클러스터의 공식 매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 저널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지식과 경험, 실천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. 또한 우리 저널이 창의도시 활동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끝으로 이 저널을 발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과 진주시에 감사드립니다.

편집인 정병훈